

환경교육을 지키는

이진종(李珍鍾) 회장 - 3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4.

10여 년 전, 어느 연구논문집에 YMCA의 간부로 있다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모씨가 '한국의 환경운동 어찌고저 찌고' 하는 글을 게재했는데, 그 글에서 씨는 "한국의 환경운동은 '최열' 씨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를 발족시킨 1983년도부터 시발한다." 라는 오류가 아닌 어처구니없는 편견과 '최열' 씨에 대한 아침적인 주장을 해, 1960년대부터 이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애써 온 많은 환경문제 전문가와 이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즉, 모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당시 매스컴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최열' 씨의 '반공해' 운동만이 '환경운동' 이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1960대부터 이 나라의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활동함으로써 당시의 정부당국으로부터, '국가개발 발전' 과 '산업발전' 을 반대하는 '반국가 행위' 내지 '용공(容共)' 으로 까지 몰리면서 불이익과 감시, 탄압 받았던 많은 환경문제 전문가와 단체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즉, 모씨 주장의 이면에는 당시 대학이나, 연구실 그리고 협회나 환경보호 그 자체만의 시민운동은 어용(御

用)적이고, '정부와 재벌이 환경문제의 가해자(加害者) 라는 등식으로 공략했던 반공해 운동' 만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는 마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표현함으로써, 병역을 마친 사람이나, 현재 군복무 중인사람을 '양심불량자' 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교육협회 이진종 회장은 어용의 대표가 된다. 환경보호 그 중에서도 제일 빛나지 않은 '환경교육' 을 잡고 있고, 그것도 정부(환경부)나 기업의 돈이 되지 않는 하청을 받아다 하고 있으니, 앞서의 공식대로라면 '어용'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필자가 아는 이진종 회장은 뚜렷한 사람이다. 신념이 그렇고, 목적이 그렇고, 하는 일이 그렇다. 한 번도 셋길로 빠지는 것을 본적이 없다. 묵묵하게 제 갈 길만 간다. 징그러울 정도로 일편단심(一片丹心)이다.

그런 이진종 회장을 30여 년 넘게 지켜봐 오면서 느낀 것은, '저런 사람에게 이 나라의 환경 정책을 맡겼으면, 오늘과 같은 환경의 꼴은 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옳다고 믿는 바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그 저돌적인 신념이야말로, 환경보호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환경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웃을 벗



어버리고, 대선에 나선 한 정치인의 캠프로 달려가는 처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을 몰살하는 것과 진배없는 배신을 하는 변호사가 '정의' 라는 이름을 내 걸고 있는 판에...(이 두 사람의 배신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였다(?)' 고 한데도, 배신은 배신이고, 배신은 인간의 기본적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는 가장 추악한 짓이다.) 이진중 회장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청컨대, 이제 이진중 회장은 환경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그것은 작금의 심각한 온난화의 원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하며, 서민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에 더욱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끝>



한국환경교육협회와 성우재단이 수여하는 '환경 전공'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의 협회 임원과 장학생(앞줄).
-뒷줄 오른쪽부터, 이진중 회장, 필자, 성우재단 이사장, 최석진 부회장(2005. 2. 13)